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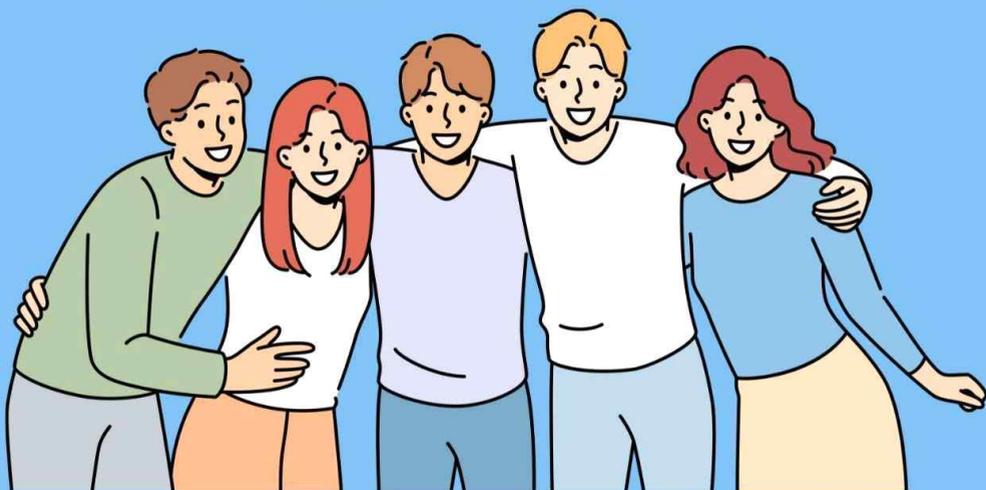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LOVE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우리는 종종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라는 생각에 빠져요. 특히 실패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실패한 지도자였고, 자신감도 없었으며, 현실의 벽이 사명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저는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라며 망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했을 때, 바로는 거절했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완전히 무너져 "주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나이까?"라고 항변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첫째,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세야,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시작했다, 내가 완성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소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실패했을 때, 친구관계에서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상처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사람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을 이루고 싶으셔서 부르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작고 약한 내 모습 다 같이

말씀봉독 출애굽기 6:2~13 다 같이

설 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설 교 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작고 약한 내 모습



▶ 찬양 영상 바로가기

축복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오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2.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